

哲學片感(四)

- 哲學을 왜 非難하는가 -

朴相鉉

難者는 哲學은 時代를 超越하는 學問이라고 非難했다. 難者는 哲學이 時代를 超越한다고 非難하지 말고 哲學은 그 任務 上으로 보아 時代를 超越하는 수가 있음을 알라. 요지음 現實的이란 말이 너무 流行的이다. 生活의 外面과 內面이 모다 現實的이라야 된다고 絶叫한다. 勿論 조흔 부르지즘이다. 그러나 새로는 現實的에서 超越的이라야 됴을 아라야 한다. 險惡한 現實 속에서 超越的 精神을 가지고 그 現實을 引導하고 □視하고 批判 할 줄 아라야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超越的이 되라는 말이다.

現實的에서 超越的이 되라 함은 무슨 虛空의 世界와 空想의 世界를 憧憬하고 그 世界를 向하란 意味는 決코 아니다. 現實이 險阻하니 그 現實을 逃避하는 意味에서 超越的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도리혀 그 現實과 싸우며 그 現實을 向上시키고 改造하려는 意味에서 超越的이 되라는 말이다. 換言하면 어셔한 理想을 目標 삼는 데서 새로는 現實的에서 超越的이 은는 말이다. 如□히 哲學도 새로는 時代를 指導하려는 것이 哲學의 가진 任務이다. 이러타고 哲學을 恒常 時代를 超越만 하려는 것으로 誤解해서는 안된다. 새로는 哲學은 그 時代와 融和도 하고 支配도 되는 것이다.

要컨대 哲學은 現實 卽 時代와 相對的 關係를 가진 것이다. 換言하면 哲學으로 因하야 時代가 變動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그와 反對로 時代가 變함으로 因하야 哲學도 變하여 질 수 있는 것이다. 哲學과 時代의 相對的 關係는 임이 哲學史上에 明確히 그 實例를 보여주었다.

何如튼 哲學은 現實生活의 社會的 現象과 恒常 握手하며 人類生活을 좀 더 高尚한 좀 더 價値있는 文化的 □□內로 引導하려는 것이 그 任務이라 하겠다.

×

들재 그들의 非難은 이러하다. 哲學은 多數한 哲學者가 自己들의 獨特한

□□의 想像力으로 任意로 □□한 學問인 故로 決코 一般化한 一定한 結論 卽 不變不動의 結論에 到達 할 수 업는 것이라고 難者의 이 非難 속에는 相當한 一理가 包含되어 있다. 何故이나 하면 難者의 말과 가티 사람은 一定한 固定的 □着所를 要求하는 것만은 事實인 싸답이다. 그러나 우리는 둘에 셋을 加하면 다섯이 되는 算術學的 眞理와 三角形의 內角의 和는 理直角과 갖다는 幾何學的 眞理와 □性이 잇는 것이면 모다 靑色 試驗紙를 赤色으로 하게 變하는 物理學的 眞理 가튼 一般化한 固定된 自然科學的 眞理를 要求하면서도 他一方에는 固定된 事實에 滿足하지 안코 그것의 變遷과 改造와 進歩를 不斷히 要求하는 것도 또한 的□한 事實이다.

變遷과 改造와 進歩가 잇는 곳에 科學의 發展이 잇는 것이오, 人類文化가 向上되는 것이다.

固定的 事實에 對하야 何等의 □□와 反省함이 업시 그것을 盲信한다면 그 곳에는 □□와 □□이 잇을 망정 進歩와 發達이 업슬 것이다. 學問研究에 잇어서도 不動不變의 固定的 結論에 到達하려는 것보다도 創造하여 가며 새로운 眞理를 探□하여 가려는 곳에 學問研究의 眞意義가 存在하는 것이다.

哲學이란 學問의 使命도 一般的 結論보다도 永遠히 解釋 할 수 업는 對象에 對하야 眞理를 探究하러 努力하는 그 永遠의 學的 努力 그것이다.

難者의 要求하는 것 가튼 不變不動의 一般的 結論은 哲學에 存在하지 안는 다 하야도 過言이 아니다. 다만 眞理를 發見하러 苦心 努力한다는 것이 哲學 일 것이다. 그리고 元來 哲學은 그 起原 上으로 보든지 그 本疾 上으로 보든지 個性的이다.